

# 최근의 기업규모별 부가가치 배분 현황 및 시사점

2018. 1



한국은행 경기본부

<작성자> 경제조사팀 오경헌 조사역(☎ 0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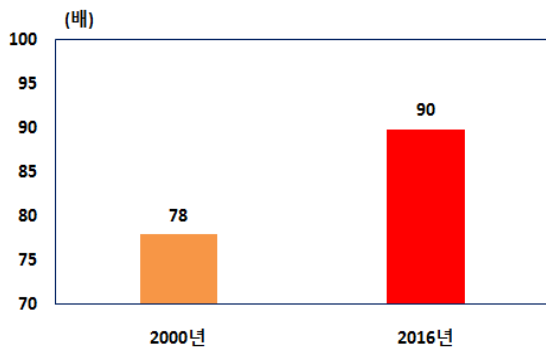
# 차 례

<b>I. 검토배경</b> .....	1
<b>II. 기업규모별 부가가치 배분의 특징</b> .....	3
1. 기업규모별 부가가치 창출 현황 .....	3
2. 기업규모별 부가가치 배분의 특징 .....	5
<b>III. 시사점</b> .....	13

## I. 검토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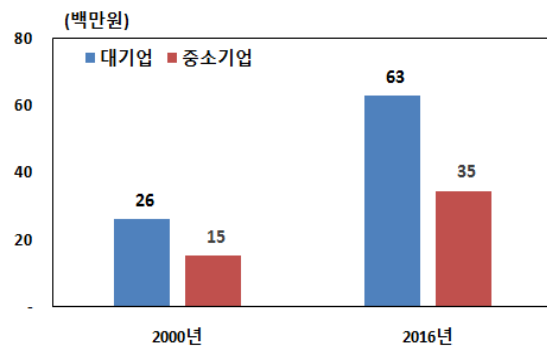
- 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시킨 후, 이를 **주주, 근로자, 채권자, 정부 등 여러 이해당사자들에게 배분**
- 2000년 이후 기업들이 창출한 부가가치 규모와 그 배분 내역을 살펴본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사업체당 부가가치 창출규모는 2000년에는 대기업(1,514억원)이 중소기업(19억원)의 78배 수준이었으나, 2016년에는 대기업(3,377억원)이 중소기업(38억원)의 90배 수준으로 나타나 양자간 격차가 더욱 확대
  - 부가가치 배분에 있어서도 대표적인 항목인 임금의 경우,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임금격차는 2000년에는 1,100만원(15 대 26백만원)이었으나, 2016년 2,800만원(35 대 63백만원)으로 크게 확대
  - 창출된 부가가치를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배분하지 않고 기업내부에 유보하는 규모도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사업체당 부가가치 격차<sup>1)</sup>



주 : 1) 대기업 부가가치/중소기업 부가가치  
자료 : 광업제조업조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자료 : 광업제조업조사

⇒ **기업규모별 부가가치 창출 규모와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배분내역**이 큰 차이를 보이게 되었는데, 이러한 변화가 **각 경제주체의 경제활동 및 우리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볼 필요\*

\* 「기업경영분석」의 제조업 데이터(2010~2016년)를 활용하여 기업규모별로 부가가치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별 이해당사자의 몫과 관련 비율을 분석한 후 시사점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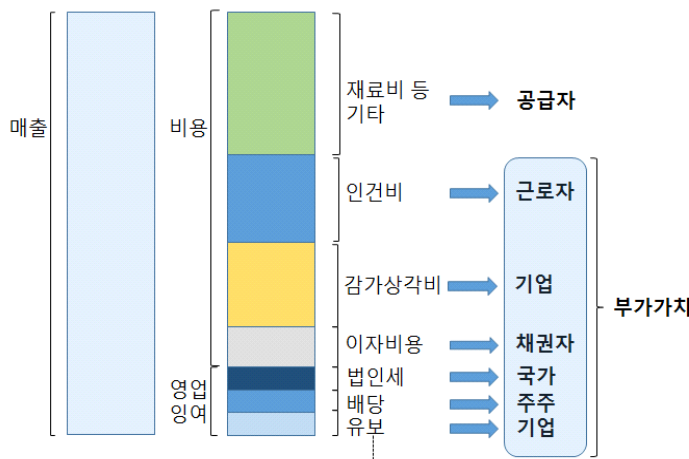
< 참고 >

### 기업의 부가가치 배분구조

- 기업의 **부가가치**란 기업외부에서 구입한 가치가 아닌 **기업내부에서 창출한 가치**를 지칭
  - 부가가치는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에 나타난 해당항목들을 합산하여 산출하며, 외부에서 구입한 재료비 등을 제외한 **인건비, 감가상각비, 이자비용, 세금, 배당, 유보** 등으로 구성

항 목	이해관계자	계산방식
인건비	근로자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관리비 중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와 제조원가명세서 중 노무비, 복리후생비의 합계
이자비용	채권자	차입금이나 회사채 발행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이자비용
세금	정부	판매관리부문과 제조부문에서 발생된 제세금과 공과 및 법인세비용
배당	주주	주주에게 배분한 배당금
감가상각비	기타	판매관리부문에서의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와 제조부문의 감가상각비의 합계
내부유보	기업내부	영업잉여(영업손익 - 대손상각비 - 이자비용)에서 배당금 및 법인세비용을 제외

**2017년 손익계산서(Flow)**



**2017년말 대차대조표(Stock)**

현금 및 금융자산	차입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매입채무
감가상각대상자산 (기계설비, 건물, 토지 등)	자본
기타자산	이익잉여금
	2015년 유보
	2016년 유보
	<b>2017년 유보</b>

주 : 1) '재료비 등 기타'에는 임차료 등이 포함

## II. 기업규모별 부가가치 배분의 특징

---

### 1 기업규모별 부가가치 창출 현황

- 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은 사업체수, 종사자수 등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
  - \* 대기업은 종사자수가 300인 이상인 사업체를, 중소기업은 10~299인 사업체를 의미
- 사업체수 기준으로 전국 사업체수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98.9%로 거의 대부분
- 종사자수 기준으로 전국 기업 종사자수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말 현재 74.6%
- 그러나 **사업체당 부가가치 창출 규모**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약 90배 정도 높으며, **양자 간의 격차는 계속 확대**되는 추세
  - 대기업의 경우 사업체당 부가가치액이 2000년 1,514억원에서 2016년 3,377억원으로 약 2.2배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동안 19억원에서 38억원으로 약 1.9배 증가하는데 그쳐 그 차이(배율)가 79.7배에서 88.9배로 더욱 확대
-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사업체수, 종업원 수에서 압도적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정도(50.9%)에 불과**
  - 역으로 보면 1.1%의 대기업이 49.1%의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있는 상황
  - 1인당 부가가치 기준으로도 대기업은 329백만원인 반면, 중소기업은 116백만원에 그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약 3배 수준

### 대기업과 중소기업 현황 비교

<전국>	2000년			2016년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사업체수(개)	708 (1.4)	50,440 (98.6)	51,148 (100.0)	734 (1.1)	68,334 (98.9)	69,068 (100.0)
종사자수(천명)	675 (29.2)	1,636 (70.8)	2,311 (100.0)	753 (25.4)	2,211 (74.6)	2,963 (100.0)
부가가치(십억원)	107,157 (52.2)	98,030 (47.8)	205,187 (100.0)	247,867 (49.1)	256,943 (50.9)	504,810 (100.0)
사업체당 부가가치(십억원)	151	2	4	338	4	7
1인당 부가가치(백만원)	159	60	89	329	116	170
급여액(십억원)	17,535 (41.6)	24,622 (58.4)	42,158 (100.0)	47,310 (38.2)	76,436 (61.8)	123,746 (100.0)
1인당 급여(백만원)	26	15	18	63	35	42

주 : 1) ( )는 비중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 2

## 기업규모별 부가가치 배분의 특징

### < 요약 >

- 인건비는 기업의 부가가치 배분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65.6%)의 부담이 대기업(42.6%)보다 크게 높은 상태
- 창출한 부가가치중에서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배분하지 않고 내부유보로 쌓아두는 비중을 보면 대기업(13.3%)이 중소기업(9.4%)을 상회
  - 중소기업이 인건비, 이자비용 등에서 보다 많은 부담을 지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보다 내부유보가 적은 것으로 추정
  - 추이를 보면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에 가장 높았다가 낮아진 후, 2014년 이후 다시 상승하는 모습
- 부가가치에서 감가상각비로 지급한 비중 또한 대기업(22.6%)이 중소기업(11.7%)의 약 2배 수준인데 이는 대기업의 자본장비율이 높음을 반영
- 부가가치에서 이자비용으로 지급한 비중은 중소기업(5.3%)이 대기업(3.6%)을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저금리로 인해 양자 모두 감소하는 추세
- 부가가치에서 세금으로 지급한 비중은 대기업(9.2%)이 중소기업(6.0%)을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중소기업의 세금부담 증가폭이 대기업의 증가폭을 상회
- 부가가치에서 배당으로 지급한 비중은 대기업(8.7%)이 중소기업(2.0%)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양자 모두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

### 기업의 부가가치 배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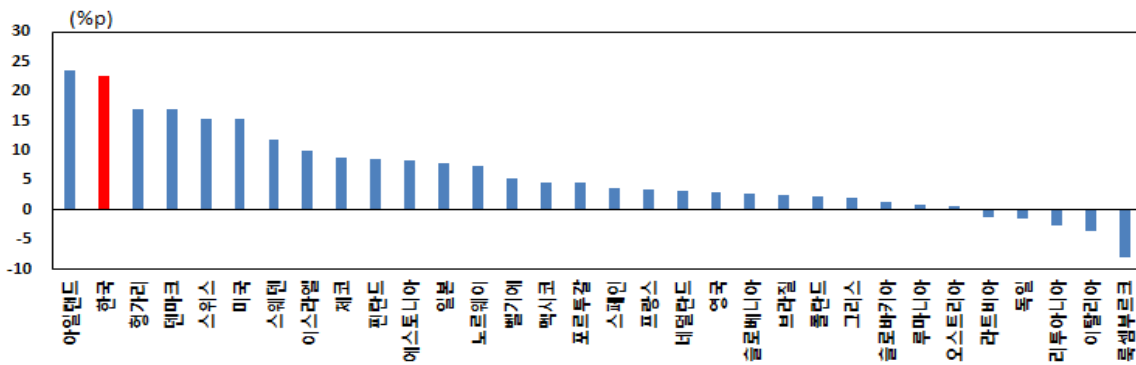
이해관계자	항 목	대기업				중소기업			
		2010	2014	2015	2016	2010	2014	2015	2016
총 부가가치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기업내부	내부유보	21.3	9.7	10.8	13.3	10.5	8.4	8.9	9.4
	감가상각비	19.7	23.9	23.8	22.6	13.0	12.0	11.9	11.7
기업	근로자 인건비	36.9	47.8	45.0	42.6	61.1	66.2	66.1	65.6
	채권자 이자비용	5.1	5.1	4.2	3.6	8.8	6.5	5.5	5.3
외부	정부 세금	9.0	7.4	7.8	9.2	5.4	5.4	5.7	6.0
	주주 배당	8.0	6.1	8.4	8.7	1.3	1.4	1.9	2.0

자료 : 기업경영분석 자료로 시산

# 1 인건비

- 인건비는 기업의 부가가치 배분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부담이 대기업보다 크게 높은 상태
  - 부가가치중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비중은 2016년 현재 중소기업이 65.6%, 대기업이 42.6%
  - 인건비 비중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과거에 비해 계속 확대되는 추세
    - 대기업의 인건비 비중은 2000년 37.2%에서 2016년 42.6%로 늘어났으며, 중소기업의 인건비 비중은 2000년 61.6%에서 65.6%로 상승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부가가치 대비 인건비 비중 격차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
  - OECD자료에 의하면 한국보다 한국보다 대기업-중소기업간 인건비 격차가 심한 나라는 아일랜드가 유일하며,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등은 오히려 대기업의 인건비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

OECD 국가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인건비 비중 격차<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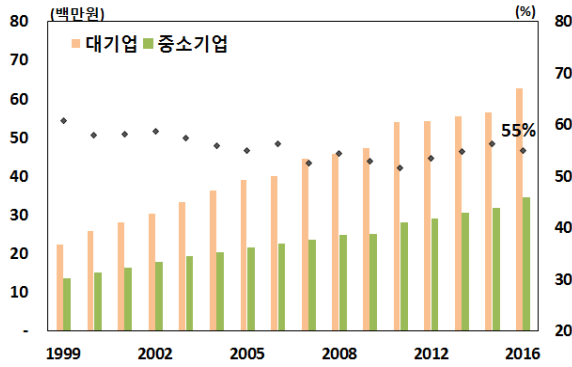
주 : 1)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대비 인건비 비중 - 대기업의 부가가치 대비 인건비 비중  
 자료 : OECD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2017

- 중소기업의 높은 인건비 비중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급여는 대기업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 2016년 대기업 근로자의 1인당 급여는 63백만원, 중소기업은 35백만원으로 중소기업 급여가 대기업의 55%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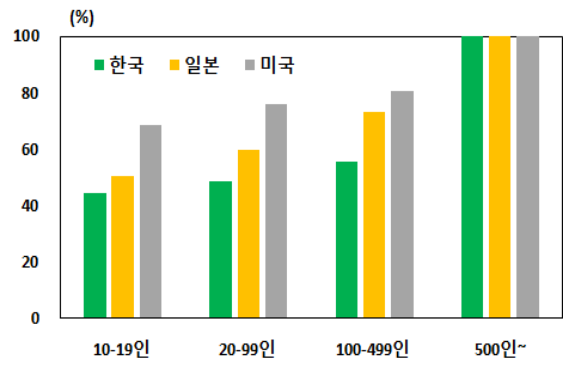
- 또한 **종업원 규모가 작아질수록 임금이 더 많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그 정도가 미국, 일본보다 **심한 편**

**기업 규모별 근로자 연평균 임금<sup>1)</sup>**



주 : 1) %는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 비중  
 자료 : 광업제조업조사

**평균임금 국제비교<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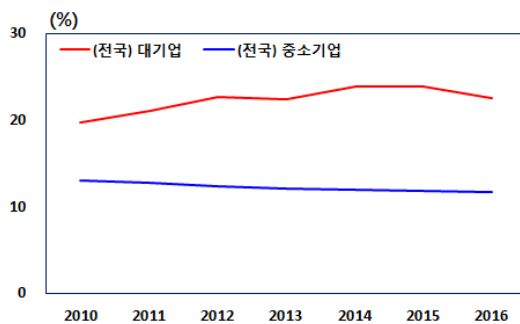
주 : 1) 500인 이상 = 100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해외 중소기업통계

□ 대기업의 인건비 비중이 낮은 것은 ① **자본 장비율이 높은 점**, ② **외주가공비 등을 통해 임금이 낮은 중소기업의 인력을 이용한 점**, ③ **해외진출 등을 계기로 중소기업과의 협상력이 강화된 점**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

① **대기업의 근로자 1인당 자본 장비율이 중소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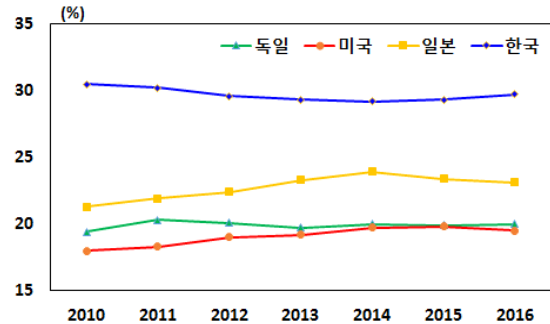
- 2016년 부가가치중 감가상각비 비중은 대기업 23%, 중소기업 12%로 대기업이 보다 자본집약적인 모습
- 우리나라 대기업의 유형자산 설비투자 비중을 보더라도 주요 국가 중에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OECD 통계에 의하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기업의 GDP 대비 총고정자본형성은 30%로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보다도 높은 수준

**부가가치 대비 감가상각비**



자료 : 기업경영분석

**주요국의 GDP 대비 총고정자본형성 비중**



자료 : OECD National Accounts

— 대기업의 높은 자본장비율로 인해 2016년 1인당 부가가치는 대기업이 329백만원, 중소기업이 116백만원으로 대기업의 1인당 창출 부가가치가 중소기업을 크게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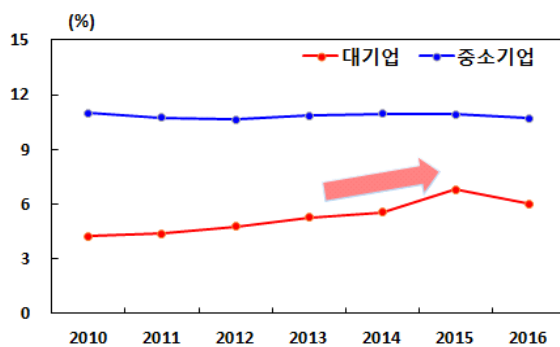
② 일부 대기업이 **외주가공비 확대**를 통해 자체 신규 고용을 축소하는 대신 **인건비가 낮은 중소기업의 인력을 활용**했을 가능성

—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의 제조업 전체 고용 증가분 65.2만명 중 중소기업 고용인원은 57.5만명으로, 중소기업이 전체 고용 증가의 88%를 차지

③ **대기업이 해외직접투자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가격 협상력이 강화**된 데도 일부 기인한 것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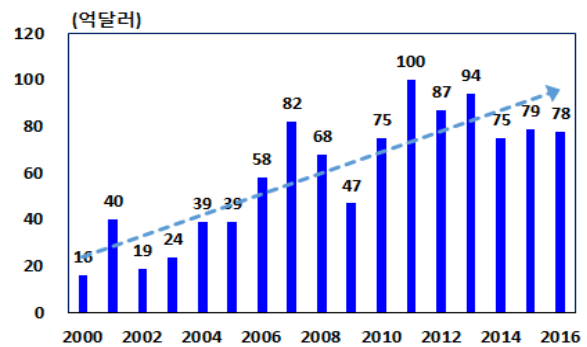
— 2000년 16억달러에 불과했던 해외직접투자는 2016년 78억달러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해외직접투자의 증가는 중소기업에 배분되는 비용 감소로 이어지면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을 제약

**대기업의 외주가공비 비중**



자료 : 기업경영분석

**해외직접투자**



자료 :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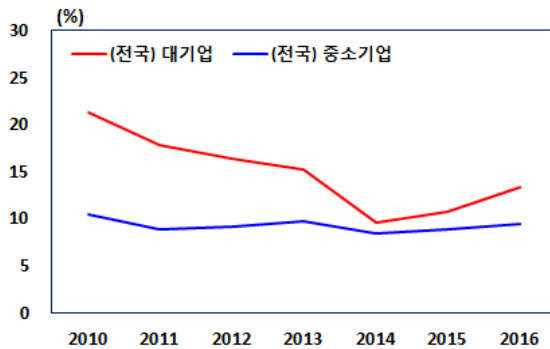
## 2. 내부유보

□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중에서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배분하지 않고 **내부 유보\***로 쌓아두는 비중(내부유보/부가가치×100)을 보면 **대기업(13.3%)이 중소기업(9.4%)을 상회**

\* 내부유보는 영업잉여(영업손익 - 대손상각비 - 이자비용)에서 배당금 및 법인세비용을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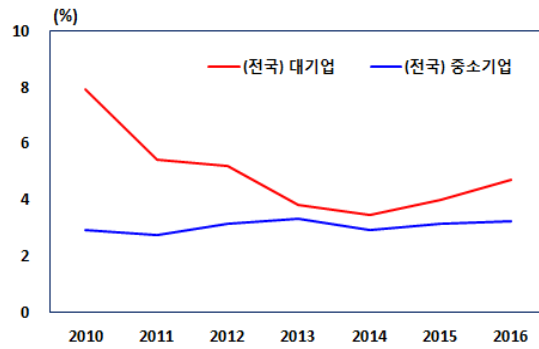
- 추이를 보면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에 가장 높았다가 낮아진 후, 2014년 이후 다시 상승하는 모습
- 총자산순이익률(당기순이익/총자산(평균)×100)을 보더라도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도 최근 다시 확대되는 모습

### 부가가치 대비 내부유보 비중



자료 : 기업경영분석

### 총자산순이익률



자료 : 기업경영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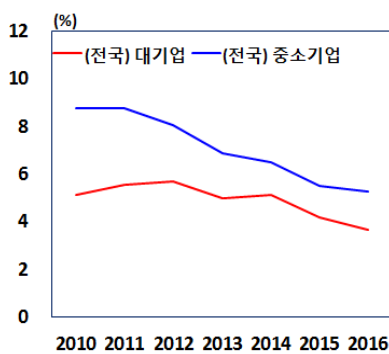
- 내부유보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비중이 낮은 것은 **중소기업이 인건비, 이자비용 등에서 보다 많은 부담**을 지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
  -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배분에 있어서 인건비+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70.9%에 달하는 반면, 대기업이 이들 항목에 배분하는 비중은 46.2%에 불과하여 24.7%p의 차이가 나는 상황
  - 대기업은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대비하여 내부자금 비축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경향을 지속

## 3. 이자비용

- 부가가치 대비 **이자비용** 비중(이자비용/부가가치×100)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부담이 다소 높은 편
  - 대기업의 부가가치 대비 금융비용은 2010년 5.1%에서 2016년 3.6%로 하락하였으며, 중소기업도 8.8%에서 5.3%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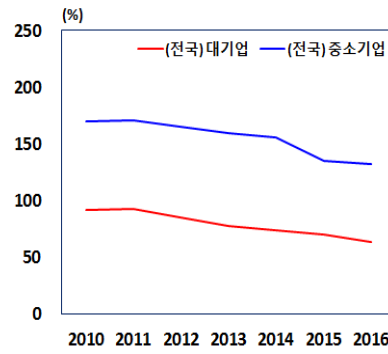
- 이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데다 기업의 투자의사결정시 차입, 채권 발행 등 타인자본 보다 주식 등 **자기자본 사용 비율을 높인** 데 주로 기인
- 이를 반영하여 대기업의 부채비율은 2010년 91.3%에서 2016년 63.5%로 하락 하였으며, 중소기업도 같은 기간 중 170.2%에서 132.6%로 하락
  - 차입금 평균 이자율의 경우 대기업이 2010년 5.17%에서 2016년 3.37%로, 중소기업이 5.96%에서 3.56%로 하락

**부가가치 대비 이자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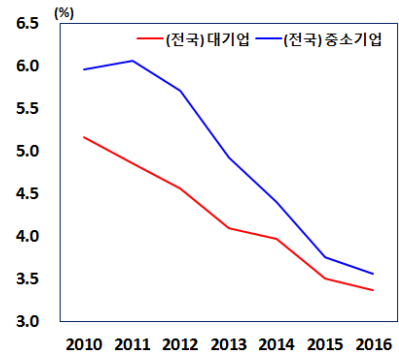
자료 : 기업경영분석

**부채비율**



자료 : 기업경영분석

**차입금 평균 이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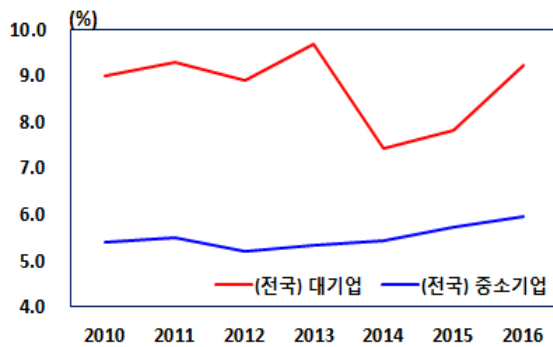
자료 : 기업경영분석

## 4. 세금

- 부가가치 대비 **세금 비중**(세금과공과 및 법인세비용/부가가치×100)은 **대기업 (9.2%)이 중소기업(6.0%) 보다 높은** 가운데 최근에는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이 대기업 보다 큰 폭으로 상승**
  - 대기업이 2010년 9.0%에서 2016년 9.2%로,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중 5.4%에서 6.0%로 상승하여,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세금부담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세금비중의 증가폭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과세표준 금액별로 보다 세분화하여 기업규모를 구분할 경우, 법인세가 누진세율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초대기업(과세표준 5,000억원 초과)의 실효세율이 중간단계기업(100~1000억원)보다 소폭 낮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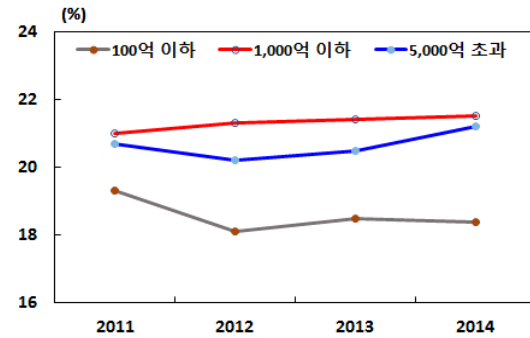
- 2014년 기준 실효세율을 파악해보면 과세표준 5,000억원 초과 기업 21.2%, 1,000억원 이하 21.5%, 100억원 이하(100억~50억) 18.4%로 5,000억원 초과 기업의 실효세율이 1,000억원 이하 기업보다 낮은 수준(외국납부세액 및 지방세 포함)
  - 외국납부세액 및 지방세를 제외할 경우, 2014년 기준 과세표준 5,000억원 초과 기업 16.4%, 1,000억원 이하 18.8%, 100억원 이하 16.5%로 5,000억원 초과 기업의 실효세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

부가가치 대비 세금 비중<sup>1)</sup>



주 : 1) 판매관리부문과 제조부문에서 발생된 제  
세금과 공과 및 법인세비용  
자료 : 기업경영분석

기업규모별<sup>1)</sup> 법인세 실효세율<sup>1)</sup>



주 : 1) 과세표준 기준, 외국납부세액 미포함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재정통계

- 과세표준 5,000억원 초과 기업의 세금 부담이 낮은 것은 **비과세, 세액감면 등의 혜택**이 이들 기업에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
  - 이들 기업은 연구개발비 및 임시·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등의 조세감면 혜택을 다양하게 수혜 받는 것으로 나타남

## 5. 배당

- 기업 부가가치중 주주에 대한 **배당금** 비중은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약 4배가량 더 높은** 가운데, 양자 모두 높아지고 있는 추세

부가가치 대비 배당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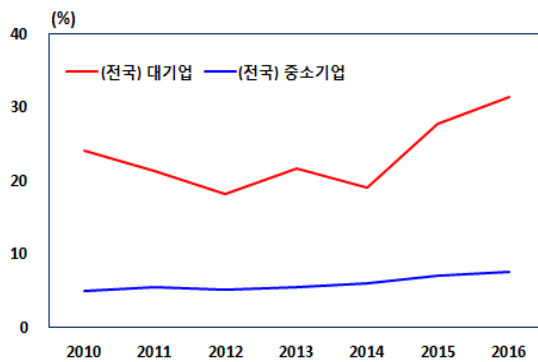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대기업	8.0	7.1	5.6	5.6	6.1	8.4	8.7
중소기업	1.3	1.4	1.3	1.4	1.4	1.9	2.0

자료 : 기업경영분석 자료로 시산

□ 주주에 대한 **배당률**(배당금/자본금×100) 및 **배당성향**(배당금/당기순이익×100)을 보더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상승한 가운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상승폭을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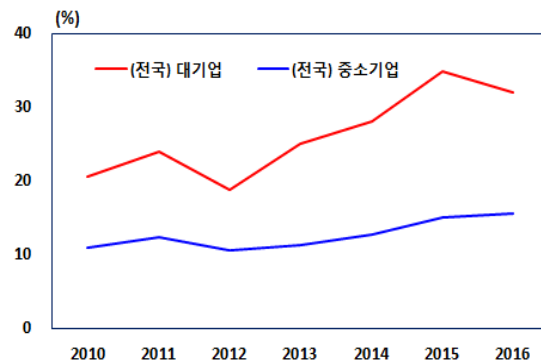
- 대기업의 배당률은 2010년 24%에서 2015년 31%로 확대되었으며, 중소기업은 5%에서 8%로 소폭 증가
- 대기업의 배당성향은 2010년 20%에서 2016년 32%로 확대되었으며, 중소기업은 11%에서 16%로 다소 상승

**배당률**



자료 : 기업경영분석

**배당성향**



자료 : 기업경영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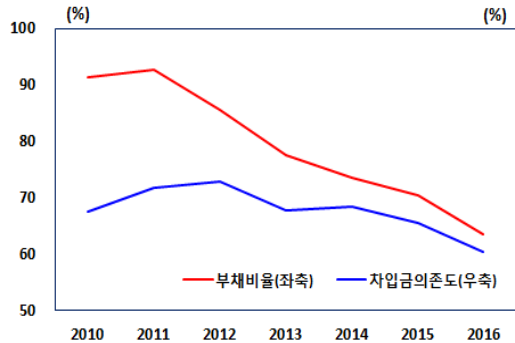
### Ⅲ. 시사점

#### 1. 기업의 과도한 내부유보를 자제할 필요

□ 대기업의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가 줄어들고 현금성자산 비중 등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여력 내지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분능력**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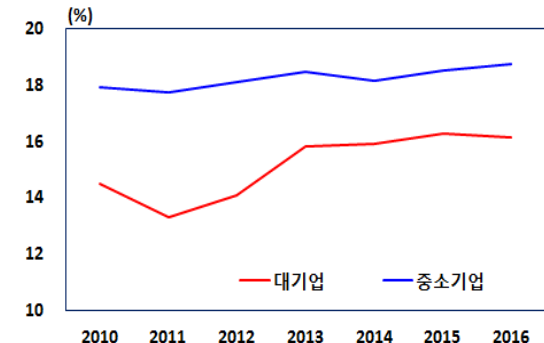
- 대기업 부채비율의 경우 2011년 90%대에서 2016년 현재 70%내외로 하락한 상태이며, 차입금 의존도는 2012년 70%내외에서 2016년에는 60%대로 낮아진 상태
- 현금보유 성향(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투자자산, 기타당좌자산)의 경우 대기업 및 중소기업 모두 증가하는 추세

대기업 부채비율 및 차입금의존도



자료 : 기업경영분석

현금보유 성향<sup>1)</sup>



주 : 1)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투자자산, 기타당좌자산의 합  
자료 : 기업경영분석

□ 기업이 내부적으로 유보한 금액은 **기업내부에 남아있을 경우 내수침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내부유보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지나칠 경우 투자 및 소비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내수침체를 야기함으로써 결국은 자신의 매출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
- 기업은 외부주문시 적정가격을 지급하거나, 임금 등을 통해 가계에 대한 배분을 확대할 필요

## 2.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축소 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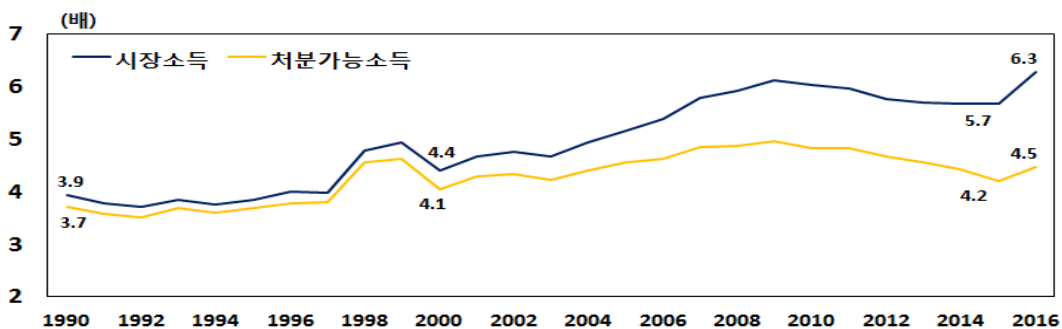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인건비 격차**, **고소득층에 주로 집중된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은 **소득양극화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

○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상위 20%계층의 평균소득/하위 20%계층의 평균소득)은 2000년 4.4에서 2016년 6.3배로 확대되는 등 양극화가 심화되는 모습

— 다만 정부의 재분배정책 효과로 인해 처분가능소득\*의 5분위 배율 차이는 시장소득 만큼 크게 확대되지 않은 모습(2000년 4.1에서 2016년 4.5)

\* 처분가능소득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지출

소득 5분위배율<sup>1)</sup>



주 : 1) 도시 2인 이상  
자료 : 통계청

□ 대기업의 내부비축 여유자금이 중소기업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공정 거래 질서를 확립**할 필요

○ 대기업(원청)과 중소기업(하청)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기업 간 임금격차 축소를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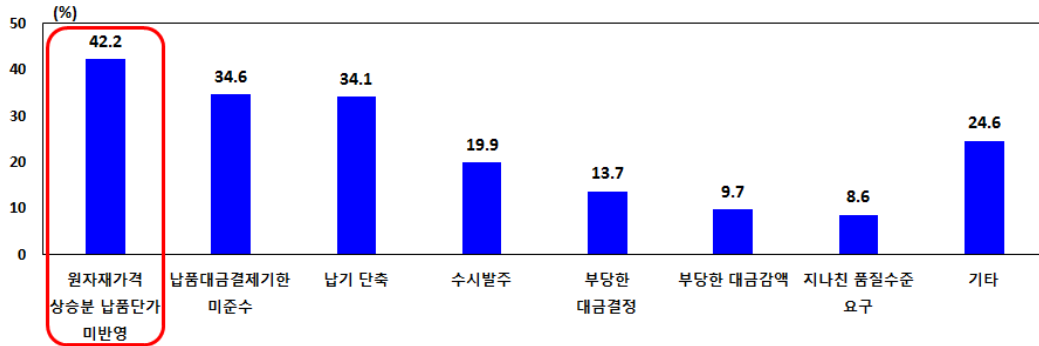
— 정부는 대기업이 우월한 협상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에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가 줄어들 수 있도록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유지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개선 및 중소기업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할 필요

— 예를 들어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익을 개선함으로써 늘어난 수익을 바탕으로 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인건비 개선이 가능

\* 하도급 계약기간중 원부자재 가격이 변동될 경우 이를 반영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납품단가를 인상해주는 제도로써, 2008년 도입이 검토되었으나 시장원리 훼손, 중소기업의 혁신의지 약화, 대기업의 해외부품업체 선호 등의 문제로 '납품단가 조정협약'만 의무화되고 '연동제'는 도입되지 않았음



### 중소기업의 애로사항<sup>1)</sup>



주 : 1) 복수응답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2017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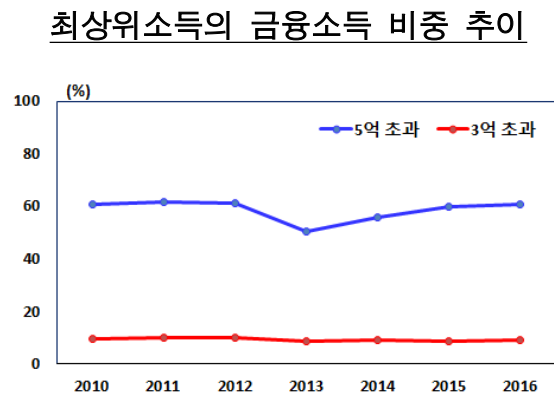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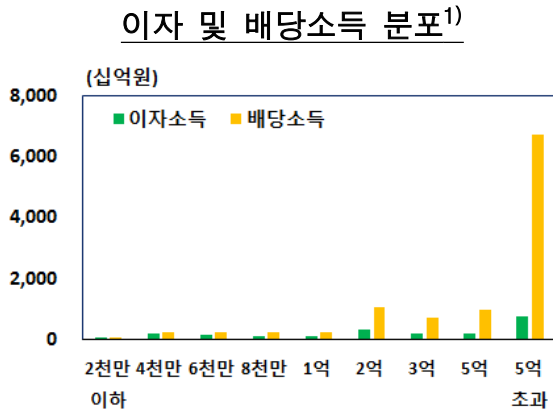
### 3. 중소기업 간 수평 네트워크 활성화

- 중소기업의 노동집약화 추세를 완화하고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직적 거래를 공정하게 만드는 것과 더불어, **중소기업 간 수평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필요
  - 분업구조의 하위계층으로 갈수록 사업체수가 늘어나는 피라미드형 구조는 원청과 하청 간 1:N의 전속적 거래관계에 기인하며, 이는 중소기업의 대기업에 대한 교섭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대기업과 협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중소기업 공동 R&D, 판로 개척 등 중소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

### 4. 정부의 재분배 기능 강화

- 소득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의 재분배기능을 강화**하여 불평등을 해소할 필요
  - 2016년 현재 전체 이자의 38%를, 배당의 65%를 종합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최상위 고소득층이 차지

- 종합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그룹의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 점유율은 2010년 이후 60% 수준을 꾸준히 유지



주 : 1) 2016년 기준  
자료 : 국세통계

자료 : 국세통계

- 상위 계층에의 소득 집중은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내수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주도로 완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향후 **기술발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 우려** 등으로 인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제도\*** 등에 대해서도 **연구를 지속**할 필요

\* 기본소득은 급속한 기술발전

- 그 외 **명목 법인세율 조정, 과도한 세액감면 축소**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균형 있는 세제혜택도 고려할 필요

- 정부는 2018년부터 과세표준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함에 따라 초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법인세 누진원칙이 계속 유지되도록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

## < 참고문헌 >

김낙현, 황설웅(2016), “가계와 기업 간 소득불균형 심화 문제와 시사점”,  
한국은행 경남본부, 2016.6월

김상조(2015), “50대 기업의 부가가치 생산 및 분배에 관한 분석  
(2002~2013년)”, 「경제개혁리포트」, 경제개혁연구소, 2015.1월

김주훈(2012),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에 관한 해석”, 한국개발연구  
원, 2012.4월

\_\_\_\_\_ (2013), “제조업부문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제고와 기업 간 분업관  
계의 개선”, 한국개발연구원, 2013.3월

이미주(2014), “경기도 중소기업의 재무건전성 평가 및 시사점”, 한국은행  
경기본부, 2014.9월

장하성(2015), “한국 자본주의 II: 분배의 실패가 만든 한국의 불평등, 왜 분  
노해야 하는가”, 헤이북스

조덕희(2016), “중소기업 9988 의미의 재해석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2016.1월

홍민기(2015), “최상위 임금 비중의 장기 추세(1958-2013)”, 「산업노동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5.2월

OECD(2017), “Entrepreneurship At a Glance”